

색채혁명 비교연구 : 오렌지 혁명과 툴립혁명의 발생특징과 요인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운영민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석사과정)

- I. 서론
- II. 기존연구 분석
- III. 오렌지-툴립 혁명의 비교
 - 1. 정치권력 구조
 - 2. 국제적 요소의 영향
 - 3. 사회/경제적 여건
 - 4. 시민사회 여건
 - 5. 시위 주동 세력의 성격
- IV. 결론

초 록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과 키르기즈스탄의 툴립혁명은 구소련 국가의 민주화 혁명을 지칭하는 '색채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하지만 색채혁명에 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됐음에도 그 발생 요소적 특징에 대한 비교분석은 아직 미진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한 두 혁명을 비교 분석해 그 공통성과 차별성을 규명해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한다.

기존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각 국의 권력구조의 특징, 대외적 영향력의 정도, 사회·경제적 여건의 영향, 시민사회 여건의 영향, 혁명 주동세력의 특징 등을 그 비교분석 대상으로 잡았다.

가급적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상기한 대상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두 혁명을 설명하는 관점들 중 몇가지는 그 설명력이 약함을 밝혔다. 또한 두 혁명이 갖는 큰 차이점들을 밝혀 이들이 과연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일 수 있는가하는 연구과제를 도출하였다.

I. 서론

2003년 그루지아에서 시작된 민주화 혁명 혹은 국민들에 의한 정권 교체 바람은 우크라이나를 거쳐 2005년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즈스탄까지 번져나갔다. 이러한 일련의 혁명은 이른바 '색채혁명'이라 불리며 CIS국가들에 민주화 혁명을 전염시켜나갈 것으로 기대됐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촉매로 폭발한 혁명의 바람이 정권교체를 이루어 냈고, 키르기즈스탄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부정을 계기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 정권교체를 이루어 냈다.

동유럽에 접해있고, 스스로 유럽지향적이라 인식하는 우크라이나,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앙아시아 ‘스탄 5개국’중 하나인 키르기스스탄. 이 두 국가는 일반적으로 구소련 국가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서로 큰 공통점을 발견하기 힘든 국가들이다. 우크라이나는 슬라브 3국중의 하나로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을 중심으로한 인구구성을 갖고 있으며 키르기스스탄은 키르기즈인, 우즈베크인, 러시아인 등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소련 시기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고는 하나, 소연방의 정책이 우크라이나와 키르기스스탄에는 분명 다른 것이었으며, 이로 인한 역사적 경험의 차이는 그 이전의 역사와 함께 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본 논문은 이들 두 국가의 전반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하려는 시도는 아니다. 다만 이러한 차이점을 가진 두 국가가 어떻게 ‘색채혁명’이라는 ‘민주혁명’이라 불리는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는가 혹은 과연 공유했는가를 분석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이러한 질문, 즉 우크라이나와 키르기스스탄에서의 혁명발생 요인과 특징에 대한 대답은 다양한 시점과 방법에 의해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2장에서는 기존 연구 분석을 통해 색채혁명의 발생요인에 대한 분석의 틀을 점검하고 기존의 연구들이 어떤 혁명의 발생 요인을 선정하여 분석했는지 점검함으로써 본 논문에서 적용할 방법적 틀과 분석 요인들을 검토한다.

3장에서는 각 요인별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기존 혁명이론에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도록 한다.

4장에서는 결론으로 3장에서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존 연구 결과를 비판적으로 재검토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을 우크라이나와 키르기스스탄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크라이나와 키르기스스탄은 2004년, 2005년 연이어 혁명을 경험해 색채혁명의 ‘전염’론의 논지를 강화하는 케이스들이다. 즉, 이들 혁명의 발생요인에 대한 비교 분석은 ‘전염론’의 타당성 여부를 가늠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양국은 색채혁명이라는 공통의 경험을 연쇄적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여러모로 다른 특징을 가진 국가라는 점이다. 즉, 두 국가의 비교분석을 통해 다른 CIS국가들의 민주화 혁명을 설명할 수 있는 일반화 가능한 요인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양국은 색채혁명을 공통적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에서는 많은 차이점을 보여준다.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크라이나는 발틱국가를 제외한 CIS 국가중 가장 민주화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키르기스스탄은 민주화 정도가 저조한 국가로 나타나고 있다. 즉, 발생요인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양 국가의 혁명이 과연 같은 성질의 것인지를 가늠해 보도록 한다.

[표 1] CIS 국가들의 민주화 지표(2009)

	EP	CS	IM	NGOV	LGOV	JFI	CO	DS*
아르메니아	5.75	3.75	6.00	5.75	5.50	5.50	5.50	5.39
아제르바이잔	6.75	5.50	6.75	6.25	6.25	5.75	6.50	6.25
벨라루스	6.75	6.25	6.75	6.75	6.75	6.75	6.00	6.57
그루지아	5.25	3.75	4.25	6.00	5.50	4.75	5.00	4.93
카자흐스탄	6.75	5.50	6.50	6.75	6.25	6.00	6.50	6.32
키르기스스탄	6.00	4.75	6.25	6.50	6.50	6.00	6.25	6.04
몰도바	4.00	3.75	5.75	5.75	5.75	4.50	6.00	5.07
러시아	6.75	5.75	6.25	6.50	5.75	5.50	6.25	6.11

라트비아	2.00	1.75	1.75	2.50	2.25	1.75	3.25	2.18
리투아니아	1.75	1.75	1.75	2.75	2.50	1.75	3.75	2.29
타지키스탄	6.50	5.75	6.00	6.25	6.00	6.25	6.25	6.14
투르크메니스탄	7.00	7.00	7.00	7.00	6.75	7.00	6.75	6.93
우크라이나	3.50	2.75	3.50	5.00	5.25	5.00	5.75	4.39
우즈베키스탄	7.00	7.00	7.00	7.00	6.75	7.00	6.50	6.89

자료 : Freedom House

*Democracy Score(DS)는 Electoral Process(EP); Civil Society (CS); Independent Media (IM); National Democratic Governance (NGOV); Local Democratic Governance (LGOV); Judicial Framework and Independence (JFI); and Corruption (CO)의 평균 값임.

II. 기존연구 분석

개별국가는 물론 색채혁명의 발생요인에 대한 국내연구는 아직 미진한 형편이며 주로 지정학적 관점에서 색채혁명의 동인을 찾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강봉구(2009)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우크라이나의 대외정치적 정체성과 주변국들의 지전략적 경쟁을 중심으로 오렌지 혁명의 원동력을 분석하였다.¹⁾ 황성우(2008) 역시 장미혁명과 오렌지 혁명을 헤게모니 충돌의 결과로 설명하였다.²⁾

해외 연구는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Scott Radnitz(2006)는 키르기즈스탄 튜립혁명의 전개 과정과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그는 향토주의(Localism), 부패, 경제적 성장통(Growing Pains) 등을 혁명 발생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³⁾

Adrian Karatnycky(2005)는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의 발생원인과 향후 전망을 연구했는데, 그는 이 논문에서 오렌지혁명의 발생요인을 정상적인 시장 거래구조를 갖추지 못한 경제환경과 클렌과 같은 비공식적 관계에 의한 정치구조에 기인한 엘리트층의 부패라는 사회 환경 속에서 서구 지원에 의한 시민사회의 발달과 글라스노스트 세대의 성장, 중산층의 성장, 미디어의 발달에 의한 엘리트 부패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가 높아진 점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⁴⁾

이상과 같은 개별 혁명연구와 함께 혁명간 비교연구를 시도한 연구물도 있는데, 이 중 Theodor Tudoroiu(2007)은 장미혁명, 오렌지, 튜립혁명의 비교연구를 통해 혁명으로서의 색채혁명의 개념을 재검토 하였고, 각 혁명의 특징과 공통된 발생단계 및 그 요인을 도출하였다.⁵⁾ 그는 각국의 색채혁명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선거조작
2.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선거 모니터링과 빠른 부정 공표
3. 반정부파의 정치적, 헌법적 소원 과정을 거치지 않은 빠른 선거 불복종 표명
4. 반정부파의 대규모 대중 동원 성공
5. 정권의 선거부정 부인과 공식 선거결과 인정 결정

1) 강봉구, 「우크라이나의 오렌지혁명에서 국제요인과 대외정치적 정체성」, 세계지역연구논총(2009, 27집 1호), pp.82-110.
 2) 황성우, 「그루지아와 우크라이나 시민혁명과 헤게모니 충돌 비교」, 국제지역연구(2008, 12권 3호), pp.483-502.
 3) Scott Radnitz, 「What Really Happened in Kyrgyzstan」, Journal of Democracy(2006, Vol.17, issue.2), pp. 132-146.
 4) Andrian Karatnycky, 「Ukraine's Orange Revolution」, Foreign Affairs(2005, Vol.85, Issue.2), pp. 35-52.
 5) Theodor Tudoroiu, 「Rose, Orange, and Tulip: The failed post-Soviet revolution」,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2007, Vol. 40), pp.315-342.

6. 대규모 폭력을 막기위한 억압적 도구 사용에 대한 정권내의 분화
7. 대통령이 해야 인정을 강요하는 대규모 집회 발생
8. 새로운 혁명적 리더쉽의 정착, 빠른 보완투표를 통한 강화
9. 새로운 리더의 민주주의 건설, 개혁, 전 정권의 인사들을 포함하는 부패와의 전쟁 선포
10. 구정권의 비 민주주의적 패턴의 생존 늘어남

Tudoroiu에 따르면 이상과 같은 공통적 단계는 정치적 경쟁자와 일부 시민 자유에 관대했던 온건적인 권위주의 정권; 시민사회의 발전(키르기즈 제외); 지배 엘리트내부의 분화; 빈곤으로 인한 대중들의 불만; 정권의 정당성 추락, 특히 리더의 정당성 추락 등의 공통적 요인을 갖고 있다.

Lucan Way(2008)는 그루지아, 우크라이나, 키르기즈스탄의 혁명을 지역확산효과, 리더쉽 전략, 민중 항쟁 등의 요소에 집중해 분석하고 있다.⁶⁾ 먼저 그는 이른바 확산론이 동유럽이나 아프리카의 혁명과 같은 곳에서의 예보다는 덜 중요한 요소였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러한 논거의 주장으로 동유럽, 아프리카와 다르게 그루지아, 우크라이나, 키르기즈스탄의 혁명은 각 국가의 선거 사이클에 따른 것이며, 그루지아와 우크라이나의 권위주의 정권 붕괴는 수년전부터 예상되어 오던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리더쉽 전략에 대해서 그는 이들 지역에서의 권위주의 정권이 반정부 세력의 위협에 대한 취약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서구와의 관계 정도와 현존하는 정권의 독재정당의 힘의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는 상대적으로 미국과의 정치 경제적 관계가 강했던 중남부 유럽에서 단 하나의 권위주의 정권도 살아남지 못했고, 상대적으로 관계가 약했던 구소련 국가들의 권위주의 정권의 생사는 국내적 요인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한다. 독재적 정당의 존재와 그 힘의 정도 역시 이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크라이나와 키르기즈스탄의 경우 독재자가 정상적으로 제도화된 정당이나 여타 조직을 활용한 독재가 아닌 단지 후견인(Patronage)관계에 의존한 지배를 유지했다. 이러한 후견-피후견 동맹은 내부의 권력투쟁이나 독재정권의 약화가 보이기 시작할 때 이탈되기 시작한다. Way는 또한 전쟁과 같은 폭력적인 상황에서의 승리와 같은 경험의 유무가 반정부 세력을 억압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는데, 그 예로 북한과 중국을 들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키르기즈스탄을 이것의 부재의 예로 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의 논문에서 우크라이나와 키르기즈스탄의 혁명 발생 요인에 대한 분석은 제한적인 '확산론'과 서구의 영향 하에서 독재정권의 제도화된 지배체제의 미비, 그리고 반대파를 억압할 수 있는 상황도구의 부재 등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한편 Scott Nissen(2006)의 연구는 혁명이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 색채혁명 분석의 새로운 분석적 틀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⁷⁾ 이러한 논의가 의미 있는 것은 앞서 살펴본 연구들이 색채혁명이 발생할 수 있는 국내외적 상황변수들에 대한 분석에 집중해 대규모 대중 항쟁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Nissen은 사회학적 집단행동이론과 정치학에서의 구조주의 이론, Agency 이론의 여러 연구들을 검토했는데, 기존의 집단행동이론, 구조주의적 이론과 Agency 모델로는 이들 색채혁명의 발생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전통적인 계급 갈등론적 혁명이론은 우크라이나와 키르기즈스탄의 혁명발생원인을 설명하는데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대중항쟁이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는 더욱 부족하다. 또한 주로 남미의 경우에서 도출된 혁명 모델들 역시 CIS국가들의 역사적, 경제적, 사회 구조적 특수성 등을 고려했을 때 새로운 설명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색채혁명의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체계화되어 있다고 할 수는

6) Lcan Way, 「The Real Cause of the Color Revolution」, Journal of Democracy(2008, Vol.19, Number3), pp.55-69.

7) Scott Nissen, 「Understanding the Colored Revolution : Success and Failires in Popular Revolt」, 64th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National Conference(2006. 4. 20-23)

없다. 많은 연구에서 당시 상황변수들과 발생원인을 명확히 구분해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 역시 아직 상대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되지 않았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통적인 분석요소들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분석 내용과 표현에 있어서는 서로 상이한 점도 발견되지만, 혁명전 정치권력 구조의 특징, 국제적 요소의 영향, 사회 경제적 여건, 시민사회 형성 수준, 혁명 주동 세력과 시위대의 성격이 그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과 같은 공통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존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두 혁명에서 발견되는 일반성과 특수성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III. 오렌지-툴립 혁명의 비교

1. 정치권력 구조

정치권력의 구조가 혁명 후 정치체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조명받아 온 반면 혁명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분석은 미진한 편이다. 먼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대부분의 구소련 국가들의 이른바 ‘후견 대통령주의(Patronal Presidentialism)’라는 제도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다.⁸⁾ 이는 권력이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에게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권력이 공식/비공식적 영역에서 후견인-피후견인 관계를 통해 작동한다는 것이며 사회 깊숙한 곳까지 이러한 비공식관계가 침투하여 있다는 것이다. 즉, 대통령은 직접선거를 통해 획득한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국가의 유·무형적 자산을 후견-피후견 관계를 통해 분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으로 나타나는 정권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이행론적 관점을 비판하면서 전개되어 왔는데, Freedom House의 분류를 빌리자면 우크라이나는 Hybrid Regime의 성격을, 키르기즈스탄은 Semi-consolidated authoritarian regime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표 2] Freedom House의 2004년 CIS국가 정권 분류

Hybrid Regime	Semi-consolidated authoritarian regime	consolidated authoritarian regime
Ukraine	Azerbaijan	Belarus
Moldova	Russia	Turkmenistan
Georgia	Armenia	Uzbekistan
	Tajikistan	Kazakhstan
	Kyrgyzstan	

자료 : Freedom House, Nations in Transit, 2004(Taras Kuzio, 2005 재인용)

Kuzio(2005)⁹⁾는 우크라이나의 혁명 전 쿠치마 정권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당시 우크라이나는 ‘경쟁적 권위주의체제(Comparative Authoritarianism)’를 가진 혼합 민주주의(Hybrid Democracy) 국가이다. 그의 분석에서 대통령의 권력은 후견 대통령을 설명하는 그것보다는 제한적인

8) Henry E. Hale, 「Democracy or autocracy on the march? : The colored revolutions as normal dynamics patronal presidentialism」,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2006, Vol 39), p.307.

9) Taras Kuzio, 「Regime type and Politics in Ukraine under Kuchma」,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2005, Vol 38), pp.167-190.

것인데, 이는 압도적인 힘을 가진 집권당(party of power)의 부재에 의한 것이다. 집권당의 부재 하에서 경쟁적 권위주의체제의 유지는 곧 지배 엘리트가 단독으로 권력을 행사할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반정부 세력(the Oppositions)도 이를 타파하고 민주주의로 나아갈(Breakthrough) 힘을 갖고 있지 못한 일종의 불안정한 세력균형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황은 쿠치마 대통령 집권 시기 정치 엘리트 집단간의 세력과 연합관계에서 잘 나타나는데, 90년대와 쿠치마의 집권 1기동안 정권엘리트 세력(Centrist Oligarchs)은 민족주의적 민주주의(National Democrats) 세력과 연합해 좌파공산주의세력과 러시아의 위협을 막아내고 2기 중반에 들어서는 유센코를 총리직에서 축출하고 티모셴코를 부패혐의로 공격하는 등 단독 집권의 자신감을 가졌다.¹⁰⁾ 또한 국민들의 지지도 역시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는데, 이 당시 여론조사 결과 단지 33%만이 반정부세력을 지지했고 15.9%는 정부세력을, 양쪽 다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31%에 달했다.¹¹⁾ 이러한 세력균형 상태는 항구적인 균형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에서의 혁명이 선거라는 불확실한 상황을 통해 이 일시적 균형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에서 나타나듯 키르기스스탄은 우크라이나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더 권위주의에 가까운 정권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이할 점은 다른 중앙아시아 구소련 국가들이 독립 후 구체제 세력의 대통령이 집권한 것과는 다르게, 키르기스스탄은 의회에 의해 강경 공산주의자인 Absamat Masaliev 대신 아카예프(Askar Akaev)가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는 점이다. 아카예프 대통령은 아시아의 심장지역에서 민주주의를 추구할 것으로 기대됐었지만,¹²⁾ 곧 권위주의적인 정책으로 돌아섰다.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차이점은 양 국가의 정치세력이 분화한 이유가 다르다는 점에 있는데, 키르기스스탄의 정치세력이 씨족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분화가 역사적인 분단경험에 의한 지역적 감정, 경제적 격차, 인구구조의 차이 등에서 나타난 정치적 성향의 차이였다면, 키르기스스탄 정치세력의 분화는 남북의 경제적 격차와 더불어 아직 전근대적인 요소를 보이는 씨족간 경쟁의 성격이 더 강했다고 할 수가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씨족(clan)이란 혈족관계에 근거한 비공식적인 정체성 네트워크로 정의할 수 있다.¹³⁾ 이러한 비공식적 씨족 네트워크는 중앙아시아 국가 내에서 강한 정치적, 경제적 동원력을 발휘하는데, 이는 키르기스스탄 역시 마찬가지이다. 씨족 네트워크의 강력함은 소연방이 중앙아시아 공화국의 지도자를 이러한 씨족간 세력 균형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배분해 왔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는데, 독립 이후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적 요소들의 도입은 이러한 씨족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더욱 노골적으로 활용하게 하였다.¹⁴⁾ 즉, 민주주의적 선거 메커니즘 속에서 씨족 네트워크에 기반한 동원력이 더욱 노골적이고 강력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은 키르기스스탄의 툴립 혁명이 시작된 양상과 반대파 세력의 면면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툴립혁명은 오쉬(Osh)나 잘랄-아바드(Jalal-Abad)와 같은 남부지역에서의 부정선거 항의와 소요에서 시작됐다. 초기 이들 지역에서의 소요는 어떤 정치적 구호나 민주주의 확립과 같은 것이 아닌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낙선에 대한 것이었으며,¹⁵⁾ 이들은 대부분 후보자의 친인척들이나 친구 등이었다.¹⁶⁾ 또한 바키예프(Bakiev)는 남부 아드기네(Adygine) 씨족 출신으로 남부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북부 이스쿨(Issukyl) 씨족 출신인 쿨로프(F. Kulov)는 그 반대로 북부에서의 지지와 남부에서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점¹⁷⁾은 이러한 씨족의 영향이 실제 컸음

10) Taras Kuzio, 2005, p.188; 유진숙, 2006, p.100.

11) Ukrayinska Pravda, 2003, 4월 25일자, Taras Kuzio, 2005, p.184 재인용.

12) Theodor Tudoroiu, 2007, p.331.

13) Kathleen Collins, 「The Political Role of Clans in Central Asia」, Comparative Politics(2003, Vol.35, No.2), p.171.

14) 강봉구, 「현대 중앙아시아의 '씨족정치(Clan Politics)」: 키르기스스탄의 사례」, e-Eurasia(2009, Vol.11), p.50.

15) Crisis Group, 「Kyrgyzstan : After the Revolution」, International Crisis Group(2005, 3. 4), p.5

16) Scott Radnitz, 2006, p.135.

17) Crisis Group, 2005, p.17.

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황은 남부지역에서의 시위 초기 잘랄-아바드와 오쉬 등의 지방 행정청을 점령하고 지역 민회인 'Kurultai'를 열어 국가통합위원회(Coordinating Council for National Unity)를 조직하고 지역 자치장(People's Governor)을 뽑는 등¹⁸⁾ 반정부과 세력간의 조율을 지역민회 차원에서 소화한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케민(Kemin)', '아이트만토프(Aitmantov)', '사리굴로프(Sarygulov)' 등 북부 씨족들에게 의존한 아카예프 대통령¹⁹⁾에 남부와 동부 씨족들이 불만을 갖게 된 것으로 바키예프와 콜로프의 권력배분 합의를 통한 연합이 반정부 동원의 불을 당겼다고 할 수 있다.

2. 국제적 요소의 영향

색채혁명의 발생과 성격에 대한 한 가지 시각은 이것이 CIS지역에서의 미국과 러시아의 헤게모니 충돌의 연장선에서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²⁰⁾ 이러한 시각은 이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실제 선거 과정에서 각 후보들의 미국과 러시아에 대한 관계 및 시각과 이에 대한 논쟁, 그리고 선거 조직과 혁명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같은 대중동원 행위자에 대한 원조와 같은 사실들을 그 논점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우크라이나에서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견해인데, 이는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과 소로스 재단(Soros Foundation) 등의 수년간에 걸친 지원,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균열점 중 친러/친서 성향이 중요한 요소이며 실제 선거에서도 이것이 쟁점화 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러시아에게는 그 뿌리가 같은 슬라브 3국 중 하나이자 EU, NATO의 팽창을 저지할 수 있는 완충지대로서의 가치와 같은 안보적 중요성은 물론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파이프라인의 대부분이 통과하는 국가로서 중요성을 갖는다. 2006년과 2009년 두 번의 가스분쟁에서 잘 드러나듯이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수출로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멀지 않은 미래까지는 영향력 하에 두고 있어야 하는 국가인 것이다. 러시아가 전통적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은 소연방 해체 후 힘의 공백상태가 발생한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국가화하고 권위주의적으로 퇴행하고 있는 유라시아 지역 민주주의의 전초기지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러시아 중심의 CIS 경제통합보다는 EU로 경제통합이 되는 것을 지지한다²¹⁾는 것이다.

[표 3] 미국국제개발처(USAID) 지원 규모

* 단위 :천만달러

내용	2001		2002		2003		2004	
	UKR	KYG	UKR	KYG	UKR	KYG	UKR	KYG
Freedom Support act	172,997	32,594	154,937	35,489	155,000	36,000	94,000	40,000
Emergency Response Fund	0	0	0	3,500	0	0	0	0
Supplemental	0	0	0	33,000	0	0	0	0

18) Crisis Group, 2005, p.6

19) 강봉구, 2009, p.52.

20) 황성우, 2008, p.483.

21) 강봉구, 2009a, p.95.

Child Survival and Health Programs Fund	1,019	0	0	0	0	0	0	0
Total Program Funds	174,016	32,594	154,937	71,989	155,000	36,000	94,000	40,000

자료 : USAID(<http://www.usaid.gov/>)

외부의 영향에 대한 또 다른 논거는 미국을 포함한 서구 세력의 지원이 우크라이나의 시민사회를 발전시키고 시위세력을 훈련시켰다는 것이다. [표 3]은 미국개발처의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지원규모를 보여준다. 이 기간동안 미국개발처는 5억 7천만 달러에 가까운 자금을 쏟아 부었고, 이는 거의 대부분 'Freedom Support Act'에 지원되었다. 데이터를 구할 수는 없지만 2001년 이전부터와 국제개발처 외에 소로스 재단,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원조기금(the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등의 지원을 포함하면 더 엄청난 액수의 지원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오렌지 혁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학생운동 단체인 'Pora'는 미국의 도움으로 세르비아의 'Otpor'로부터 훈련을 받았으며, 많은 우크라이나 NGO들이 서방 NGO의 도움을 받았다.²²⁾ 우크라이나의 선거에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 OSCE)의 선거감시단 등 서방의 많은 선거감시단이 참여했으며, 선거기간동안 야누코비치 진영은 유셴코 후보 부인이 미국인임을 집중 공격해 국외 요소를 선거이슈화 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에서와는 다르게 키르기스스탄에서는 혁명발생요인에 있어 이러한 외부요소의 영향이 미미했는데, 이는 키르기스스탄이 우크라이나가 갖는 것 만큼의 지정학적 가치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크다. [표 3]에서 보듯 미국개발처의 지원액도 우크라이나의 3분의 1이 채 못 되고, 우크라이나에서와 같은 학생운동 단체나 NGO에 대한 훈련도 거의 없었다. 학생운동 단체인 'KelKel'은 불과 혁명 2달 전에 조직되었으며, 이들의 영향은 미미했다. 또한 선거 전이나 후에 대외노선에 대한 문제는 전혀 중요항 이슈가 되지 못했다. 즉,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에서는 대외적 요인이 혁명의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지만 키르기스스탄의 툴립혁명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3. 사회/경제적 여건²³⁾

색채혁명 연구자들은 물론 남미에서의 혁명은 연구하는 연구자들도 일반적으로 혁명의 발생요인 중 해당 사회가 처해있던 사회/경제적 여건을 중요한 환경요소로 꼽는다. 이러한 견해는 앞서 소개한 Adrian Karatnycky(2005)는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을 시장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상태에서의 부패와 이에 따른 대중의 불만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Tudoroiu는 빈곤으로 인한 대중들의 불만 폭발이 키르기스스탄의 툴립혁명에 중요한 발생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인식은 구조주의적 인식에 기반 한 대부분의 혁명 또는 사회변혁에 대한 연구에서 기본적인 논지일 것이다.

[표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크라이나와 키르기스스탄의 경제적 여건은 지표상 유사하게 나타난다. 우크라이나는 오렌지 혁명이 일어난 2004년 전부터 9%대의 견실한 GDP 성장률을 보여왔고, 혁명이 일어난 2004년에는 오히려 12.1%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인플레이션이 평균 9%대였으나 GDP성장률에 비추어 보면 자연스러운 추세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다. 키르기스스탄도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

22) Theodor Tudoroiu, 2007, p.329.

23) 우크라이나의 경우 2004년 하반기에 선거와 혁명이 발생했고,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2005년 3월의 일이므로 아래 데이터 비교는 2004년을 기준으로 한다.

혁명 발생 해인 2005년에는 -0.6% 성장하지만 전해인 2004년에는 7.0%의 성장을 했다. 튜립혁명이 2005년 3월에 발생한 점을 감안하자면, 혁명 발생 원인의 관점에서는 2004년의 성장률이 의미 있다 하겠다. 물가상승률도 2004년 4.109%로 혁명 발생 원인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두 국가의 산업화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데, 이는 두 국가의 경제구조적 차이가 혁명의 발생과 진행 양상에 차이를 가져왔을 것이라는 시각의 설명력을 약하게 만든다. 특히 혁명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04년의 통계는 불과 4.1% 포인트의 차이를 보여 2003~2006년 사이에 가장 작은 격차를 보이기까지 한다.

[표 4]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사회/경제지표

	2003		2004		2005		2006	
	UKR	KYG	UKR	KYG	UKR	KYG	UKR	KYG
GDP*	4554.824	1561.493	5282.395	1698.089	5625.911	1729.029	6271.223	1820.645
GDP성장률	9.6	7.0	12.1	7.0	2.6	- 0.6	2.3	5.0
물가상승률	5.209	3.081	9.037	4.109	13.548	4.338	9.057	5.55
산업화율**	27.2	20.2	25.8	21.7	27.2	20.0	27.6	17.6
HDI***	n/a	n/a	0.774	0.705	0.788	0.696	0.796	0.710
GINI 계수	28.1	30.3	n/a	n/a	n/a	n/a	31	n/a
CPI 점수****	2.3	2.1	2.2	2.2	2.6	2.3	2.8	2.2
빈곤선 인구비율*****	n/a	49.9	27.3	45.9	n/a	n/a	n/a	n/a
도시화율*****	67.3	34.9	67.5	35.2	n/a	n/a	n/a	n/a
실업율	9.1	10.3	8.6	8.7	7.2	8.2	6.8	8.3
휴대전화 보급률(100명당)	14	3	29	5	64	11	104	24
인터넷 보급률	5.23	3.97	10.5	5.16	17	10.7	19.2	12.5
인구(mil)	47.442	5.039	47.101	5.089	46.749	5.140	46.466	5.196

자료 : IMF, World Bank, EBRD, 우크라이나 통계청, UNDP, Transparency International,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PPP / per Capita/USD

**1인당 GDP대비 산업 부문 생산량

***HDI : Human Development Indicator/2006년 데이터는 2007년 값임

****CPI : 부패인식지수, 10점 만점

*****빈곤선 인구비율은 각각 우크라이나 국가통계위원회와 World Bank가 작성한 UNDP 보고서를 따름

*****전체 인구대비 도시지역 거주인구 비율

즉, 거시경제 지표상으로는 경제적 구조의 차이, 경제적인 파탄이나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사회적 불만이 혁명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국 모두 성장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빠른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혁명발생 직전의 경제지표 역시 이를 뒷받침 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키르기스스탄은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가 2천달러도 되지 않는 빈곤한 상황이었다는 점과 혁명이

발생한 해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점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양상은 우크라이나 역시 혁명후 성장률이 2.6%로 급락했다는 점에서 혁명이라는 혼란 상황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라는 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양 국가의 사회지표는 빈곤선 인구비율에서 차이를 나타내는데, 자료가 충분하지 않지만 2004년 기준 빈곤선 인구가 2배 가까이 차이 난다는 점은 유의할 만하다. 이는 두 국가의 1인당 GDP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빈곤계층의 사회적 불만의 강도도 상당한 차이가 났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표상의 차이에 의한 특징은 실제 키르기즈스탄 시위대에 대한 보고서와 연구 결과물들에서 나타난다. 많은 보고서와 연구 결과물들에서 키르기즈스탄 시위대를 주로 지방에 거주하는 빈곤층과 실업자 등으로 묘사하고 있는데,²⁴⁾ 이는 혁명 후 비취켄 일대의 토지 점점 문제 등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또한 양 국가의 도시화율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점도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혁명의 양상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수도인 키예프 중심으로, 키르기즈스탄에서는 도시화율이 더딘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이밖에 부패인식지수(CPI)나 실업률, 인간개발지수(HDI)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부패인식지수는 조사대상 130여개 국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 2점대 초반을 유지한채 우크라이나에서만 약간의 개선이 보이는데, 이는 혁명이 일어난 그루지아와 타지키스탄이 2003년 똑같이 1.8점을 기록하는 등 그 자체로 독립되고 강력한 동인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휴대전화 보급률과 인터넷 보급률은 2004년 기준 휴대전화보급률이 약 6배, 인터넷 보급률이 약 2배 정도 우크라이나가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통신 인프라의 발달 여부가 혁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Myroslaw(2005)²⁵⁾의 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유센코가 2라운드 재투표에서 승리한 12월 26일을 전후해 'Pravda'와 같은 인터넷 매체의 클릭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상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표들을 [표 5]와 함께 비교해보면 양국의 혁명적 사회·정치·경제적 초기조건이 조금은 달랐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사회적 인프라와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히 발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5] 우크라이나, 키르기즈스탄의 혁명전 민주화 지표

항목	2003		2004	
	UKR	KYG	UKR	KYG
Electoral Process	4.00	6.00	4.25	6.00
Civil Society	3.50	4.50	3.75	4.50
Independent Media	5.50	6.00	5.50	6.00
Governance	5.00	6.00	5.25	6.00
Judicial Framework and Independence	4.50	5.50	4.75	5.50
Corruption	5.75	6.00	5.75	6.00
Democracy Score	4.71	5.67	4.88	5.67

자료 : Freedom House

24) Scott Radnitz, 2006, p.135; Theodor Tudoroiu, 2007, p.332; Crisis Group, 2005, p. 12-13

25) Myroslaw J Kyj, 「Internet use in Ukraine's Orange Revolution」, Business Horizons(2006, Vol.49), pp.71-80.

4. 시민사회 여건

대규모 대중의 집단행동이라는 측면에서 당시 양국의 시민사회 여건은 혁명 발생의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요소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중남미의 경험에서 도출되듯 사회적 네트워크는 초기에 개인들의 행동 경향을 만들어 낸다.²⁶⁾ 즉 사회적 네트워크-시민단체나 노조, 종교 단체 등의 존재나 활동은 개인이 집단행동의 초기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같은 설명은 우크라이나의 경우 가장 설득력이 있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정부,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원조기금, 소로스 재단 등의 엄청난 지원을 통해 시민사회의 발전을 이룩했고, 시민사회의 민주주의 가치를 강화하고 자유와 공정선거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는 것이다.²⁷⁾

하지만 NGO의 발달로 특정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성숙과 발달이 양국가의 혁명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혁명 발생의 중요한 영향을 미친 요소였느냐는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대중들의 시위발생 초기의 상황은 시민단체에 의해 조직된 것이 아닌 주로 개별 후보자들의 지지자, 친척, 친구들에 의한 것²⁸⁾이었으며, 혁명 기간과 비취책에서의 상황들에 대해 반정부 세력 지도자나 NGO 모두 시위대를 통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²⁹⁾

당시 미국 국제개발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구 1백 만명당 NGO의 개수는 우크라이나가 707.1개 키르기스스탄이 1730.8개³⁰⁾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NGO의 개수에 따른 시민사회 발달 정도를 논하자면 오히려 키르기스스탄이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발달된 시민사회 여건을 가지고 있어 양 국가의 다른 결과물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당시의 증언이나 언론의 보도, 그동안의 연구 등을 보았을 때, 키르기스스탄의 시위가 비공식적인 사회관계에서 시작되어 NGO의 조직화된 영향을 받지 않은채 통제되지 않는 형태로까지 발달되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즉, 키르기스스탄의 NGO 수가 더 많아 시민사회가 더욱 발달하였고, 이러한 시민사회 여건의 성숙이 (우크라이나의 시민사회 발달도 충분하였다는 가정 하에) 민주화 혁명을 발생시켰다는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다.

NGO에 따른 시민사회 여건이 우크라이나와 키르기스스탄에서 일반적인 설명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은 NGO의 질적인 발달을 측정할 지표를 비교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USAID는 매년 법적환경, 조직능력, 재정능력, 지지도 등 7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NGO Sustainability Index를 발표하는데, 이 결과는 1~7까지의 범위로 주어지며 1에 가까울수록 발달한 NGO환경을 7에 가까울수록 열악함을 나타낸다.

[표 6] CIS국가들의 NGO Sustainability Index

국가	2003	2004	2005
Armenia	4.1	4.1	4.1
Azerbaijan	5.0	4.9	5.0
Belarus	5.6	5.6	5.8
Georgia	4.1	3.9	4.0
Kazakhstan	3.9	4.1	4.1
Kyrgyzstan	4.1	4.2	4.1
Moldova	4.3	4.3	4.2

26) Donatella Della Porta, Mario Diani, "Social Movement-An Introduction", Blackwell(2005), p.118.

27) Andrian Karatnycky, 2005, p.39.

28) Theodor Tudoroiu, 2007, p.332.

29) Crisis Group, 2005, pp.3-9

30) USAID, the 2005 NGO Sustainability Index For Central and Eastern Europe and Eurasia.

Russia	4.4	4.2	4.3
Tajikistan	4.6	4.7	4.6
Turkmenistan	5.7	5.5	5.7
Ukraine	3.9	3.8	3.7
Uzbekistan	4.7	5.3	5.6

자료 : USAID, the NGO Sustainability Index 2003~2005

[표 6]에서 나타나듯 우크라이나와 키르기즈스탄의 Sustainability Index는 4.0 -0.3~+0.2 사이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양국의 지수 차이가 그들이 경험했던 큰 차이를 만들어 낼만큼의 차이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카자흐스탄(3.9~4.1), 아르메니아(4.1), 몰도바(4.2~4.3) 등 혁명을 경험하지 않은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의 지표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NGO의 숫자나 활동 수준을 토대로 정의된 시민사회의 발전 정도의 혁명 발생에 대한 기여도는 그리 결정적이라 할 수 없다.

5. 시위 주동 세력의 성격

중부유럽 반공산주의 혁명가인 Timothy Garton은 “오늘날 민주혁명의 특징은 개혁과 혁명 사이의 불분명화”³¹⁾라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의 혁명들이 선거불복종 운동에서 시작되어 대규모 대중의 시위와 정권의 퇴진이라는 경로를 밟아 나가는 양상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혁명을 이끈 반정부 세력과 이들이 동원한 시위 세력의 성격은 혁명의 발생원인을 알아보는데 매우 중요한 함의를 준다고 할 수 있다.

양 혁명 모두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반정부 세력 인사들이 지배계층과 유리되거나 탄압 받았던 반체제 인사가 아닌, 한때 지배계층에 속했거나 연합한 이탈 엘리트라는 점이다. 즉, 혁명의 시발점이 지배 엘리트 사이의 권력 갈등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오렌지 혁명이 일어난 우크라이나의 경우를 살펴보자. 반정부 세력의 상당수는 쿠치마 정부 하에서 좌파공산주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연정을 유지했던 민족주의적 야당세력과 동부지역의 올리가르히 세력이었다.³²⁾ 오렌지 혁명의 주요 반정부 세력인사는 유셴코(Viktor Yushchenko), 티모셴코(Yulia Tymoshenko) 등으로 압축해 볼 수 있는데, 유셴코는 1997년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장과 1999년 총리직을 쿠치마 정권 하에서 역임했으며, 티모셴코는 쿠치마 정권 하에서 급속히 성장한 에너지 올리가르히로 1999년 12월부터 2001년 1월까지 쿠치마 정권하에서 에너지문제 담당 부총리로 일했다. 즉, 이들은 앞서 살펴본바와 이념적 성향은 다소 다르지만, 단독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없고 공산당 세력에 대항해야 한다는 이해가 맞아 연정을 시도한 것이다.

키르기즈스탄의 경우도 역시 주요 반체제 인사인 오투바예바(Roza Otunbaeva)는 아카예프 정권하에서 외무부장관과 부총리, 주미대사 등의 직을 수행했으며, 혁명 후 대통령에 오르는 바키예프(Kurmanbek Bakiyev)도 2000-2002년까지 아카예프 정권하에서 총리직을 수행했다. 지엔비코프(Ravshan Jeenbekov)는 한때 아카예프 대통령 가족과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으나 총선에서의 갈등을 계기로 반정부와 대열에 합류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렌지 혁명과 툴립 혁명이 가장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바로 시위대의 성격이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오렌지 혁명의 주요 시위 세력은 공고한 반정부 세력-비정부단체(NGOs), 툴립 혁명의 주요 시위 주동세력은 분열된 반정부씨족연합-사회 소외계층이라고 특정해볼 수 있는데, 이는 전술한

31) Theodor Tudoroiu, 2007, p.317.

32) 유진숙, 「우크라이나의 여성정치가 올리아 티모셴코 : 정치변동과 엘리트 교체」, 新亞細亞(2006, 13권 4호), p.100

정치체제의 성격을 반영한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혁명 주동 엘리트와 시위대의 성격에서 나타나는 각 혁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한다. 먼저 혁명 주동 엘리트 계층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그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와 키르기스스탄의 혁명 주동엘리트는 모두 기존 집권 엘리트층에서 이탈한 세력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특히 이들의 주요 인사들은 당시 권위주의정권하에서 독재권력자의 가장 가까운 인척이었거나 총리와 중앙은행장과 같은 상당히 높은 공직을 수행했다.

반면 큰 차이점은 혁명 엘리트계층 내부의 결속력의 차이가 존재했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반정부세력은 유셴코와 티모시셴코의 연합으로 이미 2000년 유셴코가 중앙 은행장이었던 때부터 협력관계를 유지해 2004년 대선시에는 이들을 중심으로 반정부세력이 결집해 나갈 수 있었다. 반면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상황이 달랐는데, 가장 명망있었던 쿨로프(F. Kulov)는 감옥에 있었고, 주요 정치인들이었던 바키예프(Bakiev), 아툰바예바(R. Otunbaeva) 등의 세력은 반정부세력이라는 기치하에 연합했지만 그 응집력은 그리 크지 않았다. 당시 한 반정부세력 지도자는 당시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³³⁾

“솔직히 우리는 전혀 함께 하지 못했다. 함께 토론을 나눈 적도 전혀 없었고, 누구도 대통령 자리나 계획과 같은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리더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 하지 않았다.”

또한 전술한바와 같이 이들의 연합은 상당부분 지역 씨족적 협력의 성격도 내포했기 때문에 단일한 조직적 성격을 갖기는 힘든 면도 있었다. 이 같은 차이점은 일차적으로 혁명의 시발점이 되었던 두 국가의 선거가 서로 달랐다는 점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대통령 선거였고 키르기스스탄은 국회의원 선거였는데, 이는 각 선거의 특성상 선거 전 모든 이슈와 관심이 후보 한사람에게 모아지고 부정선거의 최대 피해자가 반정부세력 후보인 유셴코로 환원되어 국민들에게 인식되어진 우크라이나와 달리 키르기스스탄의 총선은 이러한 관심과 이슈, 피해의식이 각 후보별로 분산되어 나타났고 이것이 비공식적 관계를 통해 분출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은 시위 초기의 상황을 보면 드러나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초기 시위부터 반정권 성격으로 나타난 반면 키르기스스탄의 초기 시위는 선거과정과 선거 직후 지지 후보의 제명이나 낙선에 항의하는 피후견인들 중심이었다.³⁴⁾

초기 시위대의 성격에서도 두 국가의 혁명은 차이점을 보여주는데, 우크라이나 시위대는 주로 수도 키예프에 거주하는 도시민들이었던 반면 키르기스스탄의 시위대는 다수가 지방의 실직자나 노인, 퇴직자, 일부 적은 수의 여성과 약간의 젊은 실직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³⁵⁾ 또한 시위대의 규모도 우크라이나가 초기부터 수도인 키예프 거리에 나온 시위대만 50만 이상³⁶⁾이었던 것에 비해 키르기스스탄의 그것은 적게는 수백부터 많은 경우에도 1,000여명이 채 되지 않았다.³⁷⁾

또다른 차이점은 양국의 혁명 과정에서 젊은 층의 참여 정도가 달랐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에서는 'Pora'를 중심으로 한 30대 이하의 젊은층이 다른 연령대보다 3배 이상 혁명 대열에 참여했고, 군중 동원, 시위 지원, 시위대 전위로서 활약³⁸⁾한 반면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초기 젊은 층의 참여는 거의 없었고, 혁명기간 내내 언론의 관심을 끌었던 학생단체인 'KelKel'도 300명 정도의 회

33) Crisis Group, 2005, p.2.

34) Crisis Group, 2005, pp. 3-9.

35) Scott Radnitz, 2006, p.135; Theodor Tudoroiu, 2007, p.332; Crisis Group, 2005, p. 12-13

36) Taras Kuzio, 「The Opposition's Road to Success」, Journal of Democracy(2005, Vol.16 Issue.2), p.126.

37) Crisis Group, 2005, pp. 3-9.

38) Taras Kuzio, 「Civil society, youth and societal mobilization in democratic revolutions」,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2006, Vol.39), 365.

원으로 구성되었을 뿐이었다.³⁹⁾ 당시 키르기즈스탄에는 'KelKel'과 'Birge'라는 단 2개의 공식 학생조직이 존재했는데, 'KelKel'은 2005년 1월에, 'Birge'는 2005년 3월에 결성되어 혁명 직전에서만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KelKel'은 우크라이나의 'Pora'와 같이 혁명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비쳐지기도 했는데, 이는 이들이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어서이지 실제 군중 동원 등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가 아니다.⁴⁰⁾ 이들은 단지 50~200 여명의 학생들을 동원할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서로간의 협력 제한적이었다.⁴¹⁾ 즉, 제한적인 선거부정 혐의나 시위에서 정권퇴진을 외치는 대규모 군중 시위가 혁명적 상황으로의 진입이라고 한다면, 혁명 발생 원인으로서 학생운동 단체의 활동은 키르기즈스탄에서는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반정부세력의 균열양상의 영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와 다르게 학생운동단체에 대한 조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키르기즈스탄의 반정부 세력은 'KelKel'과 같은 공식 단체를 지원하고 동원하기 보다는 씨족 체계안의 전통 청년 집단인 '조랄라(Jo'ralar)'를 지원하고 활용했다.⁴²⁾

IV. 결론

이상 3장에서는 오렌지 혁명과 튜립혁명의 발생적 특징과 요인을 검토하였다. 양 국가의 혁명 전 지배권력 구조는 혁명의 진행양상에 큰 우크라이나의 경우 영향을 미쳤는데, Lucan Way(2006) 연구결과가 주장하는 현존하는 정권의 독재정당의 힘의 정도에 따라 반정부세력의 위협에 대한 취약성이 달라진다는 점은 적절히 적용될 수 있었다. 쿠치마 정권 1기의 민족주의 세력과의 연정과 2기에 말에 나타난 현상은 독재당의 부재현상과 그 힘의 정도에 따른 취약성을 적절히 설명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주장은 키르기즈스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데, 키르기즈스탄의 권력구조는 다분히 씨족정치적 성격을 띠고, 혁명의 시발점도 이곳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또한 서구와의 접근성 정도에 따라 혁명의 발생 가능성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논의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와 키르기즈스탄의 접근성 정도는 그 지형학적 가치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이런 논의의 연장선으로 색채혁명이 서방의 이 지역 NGO에 대한 지원과 이로 인한 시민사회의 발달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은 그 설명력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물질적인 지원액뿐만 아니라 청년단체와 같은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교육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에서 모두 혁명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양국가의 당시 사회·경제적 지표는 경제정책의 실정과 이에 따른 대중의 불만이 혁명의 추동력이라는 주장의 설명력을 약하게 만든다. 혁명 직전 양국의 경제지표는 양호했고 실업수준 또한 높지 않았다. 다만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는 경제적 성과와 상관없이 혁명의 가능성 있는 요인이 됨을 추정해볼 수 있었다. 부패에 관한 문제는 지표상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통신인프라의 발달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양국의 사회·경제·정치적 초기조건이 상당히 달랐음을 확인했는데, 이는 혁명 발생 요인으로서의 중요성 보다는 혁명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보여진다.

NGO의 양적, 질적 수준으로 살펴본 시민사회 여건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

39) Theodor Tudoroiu, 2007, p.333.

40) Alisher Khamidov, 「Kyrgyzstan's Revolutionary Youth : Between State and Opposition」, SAIS Review(2006, Vol.26, Issue.2), pp. 86-89.

41) Alisher Khamidov, p. 89.

42) Alisher Khamidov, p. 90.

방의 지원정도가 현저히 차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동기간 양국가 NGO의 질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표상으로만 보자면 양국 NGO의 발달 정도는 혁명발생 정도와 크게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키르기즈스탄의 지표차이는 크지 않으며, 혁명이 발생하지 않은 카자흐스탄과 같은 국가와도 오히려 지표상으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양국의 시위주동세력과 시위대의 구성특징은 권력구조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했다. 우크라이나는 결집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반정부 엘리트 집단과 시민사회집단의 동원력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고, 키르기즈스탄의 경우 씨족에 기반한 반정부 엘리트들이 자신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동원화를 이루어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반체제 인사들이라 해도 집권 세력의 꺾박을 받아오기만 한 것은 아니고, 연정이나 한때 집권 세력의 엘리트로 역할하기도 한 이탈 엘리트적 성격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시위대의 성격에 있어서는 전술한 것과 같은 특징 외에 청년 단체의 역할에 큰 차이를 보였다. 우크라이나의 'Pora'는 오렌지 혁명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 반면, 키르기즈스탄의 'KelKel'의 역할은 미미한 수준이었고 과대 평가된 면도 있다.

이상과 같은 비교분석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결론을 가능하게 하는데, 하나는 기존의 색채혁명을 설명하는 여러 설명의 틀이 부분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이렇게 큰 발생 요인적 차이를 보이는 두 혁명을 같은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기존 대외적 영향이나 확산론에 입각한 설명의 틀이나 경제적 구조에 의한 혁명발생 설명보다는 권력체제의 성격이 더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물론 본 논문의 분석이 각 요소의 영향력 정도의 차이까지 설명하지는 못하는 한계를 갖고는 있으나 기존의 접근방식과 다른 방향의 시각이 필요함을 제시하는 정도의 기여는 있을 수 있다 하겠다.

주지한 바와 같이 이 두 혁명은 그 발생요인적 특징과 결과 양면에서 모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두 혁명을 민주화 혁명을 전제로 하는 '색채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묶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결론이다.

상기한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은 본 논문의 한계점이지만 앞으로 더욱 연구되어야 할 주제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참고자료

강봉구, 「우크라이나의 오렌지혁명에서 국제요인과 대외정치적 정체성」, 세계지역연구논총(2009, 27집 1호), pp.82-110.

「현대 중앙아시아의 '씨족정치(Clan Politics)' : 키르기즈스탄의 사례」, e-Eurasia(2009, Vol.11), pp.49-53.

유진숙, 「우크라이나의 여성정치가 율리아 티모셴코 : 정치변동과 엘리트 교체」, 新亞細亞(2006, 13권 4호), pp.97-114

황성우, 「그루지아와 우크라이나 시민혁명과 헤게모니 충돌 비교」, 국제지역연구(2008, 12권 3호), pp.483-502.

Andrian Karatnycky, 「Ukraine's Orange Revolution」, Foreign Affairs(2005, Vol.85, Issue.2), pp. 35-52.

Alisher Khamidov, 「Kyrgyzstan's Revolutionary Youth : Between State and Opposition」, SAIS Review(2006, Vol.26, Issue.2), pp. 86-89.

- Crisis Group, 「Kyrgyzstan : After the Revolution」, International Crisis Group(2005, 3. 4), p.2.
- Donatella Della Porta, Mario Diani, "Social Movement-An Introduction", Blackwell(2005), p.118.
- Henry E. Hale, 「Democracy or autocracy on the march? : The colored revolutions as normal dynamics patronal presidentialism」,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2006, Vol 39), p.307.
- Kathleen Collins, 「The Political Role of Clans in Central Asia」, Comparative Politics(2003, Vol.35, No.2), p.171.
- Lcan Way, 「 The Real Cause of the Color Revolution」, Journal of Democracy(2008, Vol.19, Number3), pp.55-69.
- Myroslaw J Kyj, 「Internet use in Ukraine's Orange Revolution」, Business Horizons(2006, Vol.49), pp.71-80.
- Scott Radnitz, 「What Really Happened in Kyrgyzstan」, Journal of Democracy(2006, Vol.17, issue.2), pp. 132-146.
- Scott Nissen, 「Understanding the Colored Revolution : Success and Failires in Popular Revolt」, 64th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National Conference(2006. 4. 20-23)
- Taras Kuzio, 「Regime type and Politics in Ukraine under Kuchma」,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2005, Vol 38), pp.167-190.
- _ 「The Opposition's Road to Success」, Journal of Democracy(2005, Vol.16 Issue.2), p.126.
- _ 「Civil society, youth and societal mobilization in democratic revolutions」,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2006, Vol.39), 365.
- Theodor Tudoroiu, 「Rose, Orange, and Tulip: The failed post-Soviet revolution」,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2007, Vol. 40), pp.315-342.
- USAID, the 2005 NGO Sustainability Index For Central and Eastern Europe and Eurasia.
- Freedom House : <http://www.freedomhouse.org/> (검색일 : 2009.11.27)
- IMF : <http://www.imf.org/external/data.htm>(검색일 : 2009.11.27)
- World Bank :
- <http://econ.worldbank.org/WBSITE/EXTERNAL/EXTDEC/0,,menuPK:476823~pagePK:64165236~piPK:64165141~theSitePK:469372,00.html>(검색일 : 2009.11.29)
- EBRD : <http://www.ebrd.com/pubs/index.htm>(검색일 : 2009.11.25)
- 우크라이나 통계청 : <http://www.ukrstat.gov.ua/>(검색일 : 2009.11.20)
- UNDP : <http://www.undp.org/>(검색일 : 2009.11.27)
- Transparency International : <http://www.transparency.org/>(검색일 : 2009.12.1)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www.itu.int/(검색일 : 2009.12.1)